

한의학 보충문제풀이 정답

문항	정답
1	9
2	혈수 : 78. 64. 70. 66. 58 오름차순 : 5.2.4.3.1
3	上焦 寒氣上焦 上焦 下脘
4	1.2.3.4.5.6.7
5	1.3.2.4
6	2.3.5.6.1.4
7	3.4.1.2

屈原曰吾聞之 新沐者必彈冠 新浴者必振衣 安能以身之察察 受物之汶汶者乎. 寧赴湘流 葬於江魚之腹中 安能以皓皓之白 而蒙世俗之塵埃乎 漁父莞爾而笑 鼓枻而去 乃歌曰 滄浪之水清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遂去不復與言.

굴원이 대답하기를, “내가 들으니, ‘새로 머리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고, 새로 목욕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튄다.’고 하였소. 어떻게 자신의 깨끗함으로 상대의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차라리 상수(湘水)의 물결에 뛰어들어 강의 물고기 뱃속에 장사지내질지언정 어떻게 희고 흰 결백함으로 세속의 먼지를 뒤집어쓸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어부가 빙그레 웃고는 노를 저어 떠나면서 노래하기를, “창랑(滄浪)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빨 수 있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다네!”라고 하고는 마침내 떠나서 더 이상 함께 말하지 않았다.

『굴원-어부사(漁父辭)』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